

KIOM 글로벌원정대 10주년 기념집

KIOM 글로벌원정대 10주년 기념집

# KIOM GLOBAL EXPEDITION 10TH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글로벌원정대 10주년 기념집』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자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인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으로 배움의 여행을 떠났던  
30팀 107명 원정대원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기록입니다.  
이 책이 앞으로 세계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미래 인재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Contents

04	발간사
06	원정대원 응원메시지
10	KIOM 글로벌원정대 트렌드
16	세계로! 미래로! 30가지 이야기
38	우수연수후기
46	그 여름을 추억하다

# KIOM 글로벌원정대 10주년 기념집

KIOM Global Expedition 10<sup>th</sup> Anniversary Book

2007-2016



2007~2016 KIOM 글로벌원정대 포스터

## KIOM 글로벌원정대

KIOM 글로벌원정대는 대학(원)생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전국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팀구성** 1팀 3~4명으로 구성(단, 한의학전공자 1명 이상 포함)

**연수주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 관련 응용과학 모든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

**연수기간** 여름방학(7~8월) 중 자율적 수행(2~3주간)

**방문기관** 해외 연구기관, 기업, 대학, 병원, 정부기관,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주제 관련 기관

**지원사항** ▲팀당 연수지원금 900만원 ▲장학금 총 500만 원 ▲KIOM 연구자 멘토링

**추진일정** ▲3~4월 모집 ▲5월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6월 발표심사, 3팀 선발, 발대식

▲7~8월 해외연수 ▲9월 성과보고회

**커뮤니티** <http://cafe.daum.net/kiomglobal>

# 발간사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질서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이자 유산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인해 세계 전통의학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높은 교육 수준과 함께 특유의 근성과 열정을 겸비한 인재들, 우수한 인적자원이 우리 한의계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 미래 한의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7년, 오랜 준비 끝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KIOM 글로벌원정대'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 분야와 관련된 응용과학 모든 분야를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병원,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도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한의학과 타 분야간의 융합 방안 모색은 물론, 미래 전략 방향 수립, KIOM의 구체적 실천방향 및 모델 제시 등 다학제 구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각에서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다수 도출되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KIOM 글로벌원정대,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도 확인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연구원의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발간 되는 『KIOM 글로벌원정대 10주년 기념집』은 그동안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전 세계 곳곳으로 배움의 여행을 떠났던 원정대원 107명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이 자랑스러운 원정대원들에게 그동안의 여정을 함께 돌이켜보는 소중한 선물이 되고, 앞으로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미래 인재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혜정

이혜정

# 세계를 향해 도전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한 발 먼저 나아갔던 선배 원정대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후배 원정대원들에게 보내온 응원메시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만나볼 수 있었던 너무나도  
멋진 기회였습니다! -10기 이현왕

처음에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다보면 중간에는 지칠지라도 마지막엔  
정말 뿌듯할 거예요^^ -7기 이연선

1기 연수를 다녀온 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네요. 원정대 활동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원정대 사업이  
더 확장돼서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기 남윤성

앞으로 떠나게 될 원정대원분들,  
처음 다짐했던 목표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기 정재윤

글로벌원정대의 열 살을 축하하고, 앞으로  
펼쳐갈 스무 살 푸른 미래를 기대합니다!  
-8기 김영선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세계적으로 한방치료를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기 박소현

한의학 전공생과 비전공생이 함께  
해외에서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탐방을 하는  
경험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감사드리며,  
원정대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큰 꿈을 갖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파이팅!:) -9기 김주환

예과 2학년때 미국 NIH, Cornell MSKCC,  
UCLA 동서의학센터 등을 탐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벌써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임상 5년차  
한의사가 되었네요!^^ 글로벌원정대가  
벌써 10주년을 맞이했다니 너무 축하드리고,  
1기로서 참 기쁩니다.♥ 글로벌원정대의  
추억은 저와 팀원들에게 너무 소중한고,  
또 임상에 나와 있을 때도 항상 꺼내서  
보고 싶은, 그런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소중한하지만  
글로벌원정대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반짝거리는 경험들이 한의학 발전과  
세계무대의 한의학 진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비 한의사 후배님들,  
그리고 한의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 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어줄  
우리 KIOM 글로벌원정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1기 박강민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러닝 포인트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배운 점도 느낀 점도  
많았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은 경험입니다. -10기 강지윤

원정대에서 배웠던 능력,  
느낀 감동, 소중한 시간들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9기 문한빛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연수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주제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충분히  
공부하시길!  
-10기 최새롬

한의학의 미래를 글로벌원정대의 열정으로  
더욱 빛내주세요^^ 후배님들 파이팅입니다!  
-4기 유동원

10주년 축하합니다! 한의학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대사가 되는 뿌듯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8기 최안나

한번 해보면 매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10기 김은지

글로벌원정대를 응원합니다! -8기 한정훈

학부생 때 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10주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 후배들이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4기 김민혜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도전하세요!  
글로벌원정대 파이팅! -8기 박사윤

KIOM 글로벌원정대! 한의학도라면 꼭  
도전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와 새로운 한의학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인생에서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파이팅~! -10기 추하와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기 남주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주었던  
KIOM 글로벌원정대 소식을 다시 한 번  
듣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반갑습니다.  
그간 글로벌원정대에 선발된 프로젝트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1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각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KIOM 글로벌원정대가  
한의학계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KIOM 글로벌원정대가 앞으로도  
쭉 몇 십년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4기 김재굴



선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쌓고 관리하는지 꼭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6기 김희윤

견문을 넓혀 준 원정대 경험! 몇 달간의 활동으로 얻은 것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후배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것들의 원천이 될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8기 김도영

저에게 두 번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4기 황규욱

후배 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5기 윤정민

여러분의 좋은 기회를 응원합니다.  
-8기 류호선

원정대 경험은 제 대학생활 중에 가장 값진 경험입니다. 준비할 때 조금 힘들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테니 힘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7기 김혜진

글로벌원정대를 통해서 공부와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더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기 김민아

한 해 한 해 성장해가는 KIOm 글로벌원정대를 기대합니다.^^  
-2기 조민화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했습니다. KIOm 글로벌원정대 파이팅! -5기 김두리

자신감과 두려움의 사이에 있던 본과 시절, 글로벌원정대를 통해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도전하세요! -7기 박성준

2016년 자페스펙트럼장애를 주제로 3주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의대에 입학해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KIOm 글로벌원정대에 참가한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로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을 읽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며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몇 달 동안 준비하며 시험과 겹쳐 힘든 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원정대에서는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많은 경험과 추억을 얻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참가해 이 소중한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KIOm 글로벌원정대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기 박수현

한의학을 임상에만 국한시키면 생각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고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8기 강건

강의실에 앉아서 고민하고 상상하던 한의학의 미래를 두 눈으로 보고,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얻었던 경험을 일상에서, 학교에서, 미래의 임상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원정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기 한동재

글로벌원정대 1기입니다^^ 10년간의 노력에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꼭 파이팅! -7기 박슬기

본과 1학년 때 다녀온 글로벌원정대라는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남은 한의대 생활 열심히 달려 이제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미래에 하려는 일도 글로벌원정대 때 고민했던 '한의계에서 데이터 축적'에 관한 일입니다. 글로벌원정대는 정말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원정대가 10년, 20년 지속되어 저처럼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7기 추홍민

학부 생활 중 가장 뜻깊고 즐거운 추억이 된 KIOm 글로벌원정대! 졸업하고 한의사로 살아가면서 그때 그 기회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자양분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의계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글로벌원정대, 앞으로도 영원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기 김해원

훌륭한 한의학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7기 민병선

외국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는 건 학생의 신분일 때 더 우호적이고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해외여행을 넘어서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8기 김동혁

글로벌원정대를 통한 소중한 경험이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제 시각을

넓혀주고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기 이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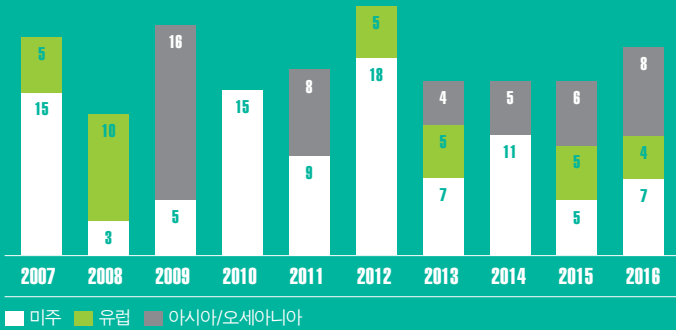
글로벌원정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많은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원정대는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10기 조은별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활동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7기 권준휘

정말 좋은 기회이니만큼 많은 것을 얻고, 생각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후회 없을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9기 이지연

돌이켜보건대 글로벌원정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후배 원정대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기 이지수

# 한 눈에 살펴보는 KIOM글로벌 원정대, 10년의 이야기



12개국  
170 기관 탐방



## 12개국 170기관 탐방

### Asia · Oceania

#### 중국

-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Hospital
- Bei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ubsidiary Dongfang Hospital
-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s, Institute of Basic Research In Clinical Medicine
- China Beijing Tongrentan
- China Medical University
- Fudan University
- Guang'anmen Hospital,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s
- Institute of Chinese Materia Medica,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s
-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Peking University School of Stomatology
- Shanghai Institute of Materia Medica Chinese Academy of Science
- Shanghai Institute of Materia Medica,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asty Holding Group
- Xiyuan Hospital,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s
- Zhejiang University

#### 대만

- China Medical University
- Committee of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Medicine
- SUN TEN PHARMACEUTICAL CO., LTD
- Taipei Chinese Medical Association

#### 홍콩

- Faculty of Dentistr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Queen Elizabeth Hospital
- The 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Chinese Medicine

#### 일본

- Ginza oct clinic
- Institute of Nature Medicine
- Juntendo University
- Kawai Kinkaitai Therapy
- Kitasato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Research Center
- KOKANODO Co.,Ltd.
- Yokohama clinic

#### 호주

- Co&Co Asian Medicine Clinic
- Endeavour College of Natural Health
- Flinders University
- GORYEO Oriental Medical Clinic

- Griffith University, Exkittis Institute for Cell and Molecular Therapies
- KO&KO Oriental Medical Clinic
-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 Sydney Institut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University of Queensland, Institute for Molecular Bio Science
-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Western Sydney University
- WorldCUI Oriental Medicine Clinic

### America

#### 미국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merican Red Cross Greater New York
- Anxiety and Depression Association of America
- AT&T
- AutismSpeaks
- Blue Sleep Clinic
- Boston Acupuncture Community
- Boston Children's Hospital
- Center for Health & Healing
- Center for Mindfulness in Medicine, Health Care, and Society
- Champion Physical Therapy and Performance
- Christus Health
- Columbia University
- Elmwood Institute
- EXOS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Gerson Institute
- Ground Zero,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 l& Museum
- Happtique
-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 HIT Consulting LLC
- Immesight Institute
- Institute of Noetic Sciences
- Johns Hopkins Bayview Medical Center
-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Health
- JOHNS HOPKINS Integrative Medicine & Digestive Center
- Kaiser Center for Total Health
- Kronos Optimal Health Company
- Kyung Hee Acupuncture & Herbs
-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 MassachusettsGeneralHospitalLaboratory
- Mayo Clinic
- Medecins Sans Frontieres
- Medical Faculty Associates
-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Integrative Medicine Outpatient Center
- National Association of Anorexia Nervosa and Associated Disorders
- National Autism Center

- National Eating Disorders Association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evada center of alternative & anti aging medicine
- New York Football Giants Inc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PacificCollegeOfOrientalMedicine
- Penn State Milton S. Hershey Medical Center
- Pfizer
- Preventive Medicine Research
- Randolph School
- Reno Alternative Medicine
- Rutgers University Sports medicine
- Salix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 Santamonica Hospital
- Scannadu
-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 Stanford Hospital 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 & Wellness
- Stanford University Biodesign
- Stanford University Bioengineering
- Stanford University Sleep Disorders Clinic
- Steadman Clinic
-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The Continuum Center for Health & Healing
- The Johns Hopkins Integrative Medicine & Digestive Center
- The School of Sleep Medicine, Inc.
- TRIA Orthopaedic Center
-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 United State Botanic Garden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Universal Marine Medical Supply Corporation
- University of California , Irvin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Sciences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Medicine, Susan Samueli 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
- UniversityofCalifornia,Irvine,The Laboratory for Mind / Body Signaling & Energy Research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East-West Medical Center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Angeles, Santa Monica Medical Center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epartment of Biochemistry and Biophysics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Osher 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pigenome Center
- Voalte
- Voices of September 11th
- West Health Policy Center
- Yelo Spa

#### 멕시코

- Baja Nutri Care
- Bio Medical Center

- CHIPSA Hospital
- Hope4 Cancer Institute
- Hospital Del Prado
- International Bio Care Hospital
- Oasis Hospital

### Europe

#### 영국

- Acumedic Centre
- Complementary Medicine, Peninsula Medical School, Universities of Exeter & Plymouth
- Complementary Medicine, School of Health and Social Sciences, Middlesex University
- Helen & Douglas House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ealth and Social Care
-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 Nuffield Trust
- Princess Alice Hospice
- The Asanlé Academy of Chinese Medicine
- The Prince's Foundation for Integrated Health
- The Royal London Hospital for Integrated Medicine
- The University of Sheffield, Health Economics and Decision Science
- Trinity Hospice
- University of Southampton, NIHR Evaluation,

- Trials and Studies Coordinating Centre
- University of Westminster

#### 독일

- Bad Wörishofen
- BRK-Pflegezentrum am Mangoldfelsen
- Centre fo r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in Munich
- Charité University
- German Cochrane Centre
- German Medical Acupuncture Association(DAGFA)
- Kliniken Essen-Mitte
- Lukas Klinik

#### 스위스

- Chiway AG
- Lukas Klinik
- See-Spital
- University of Bern, Institute of Complementary Medicine
- WHO, Department of Traditional Medicine
- World Health Organization

#### 스웨덴

- BioGata AB
- Karolinska Institu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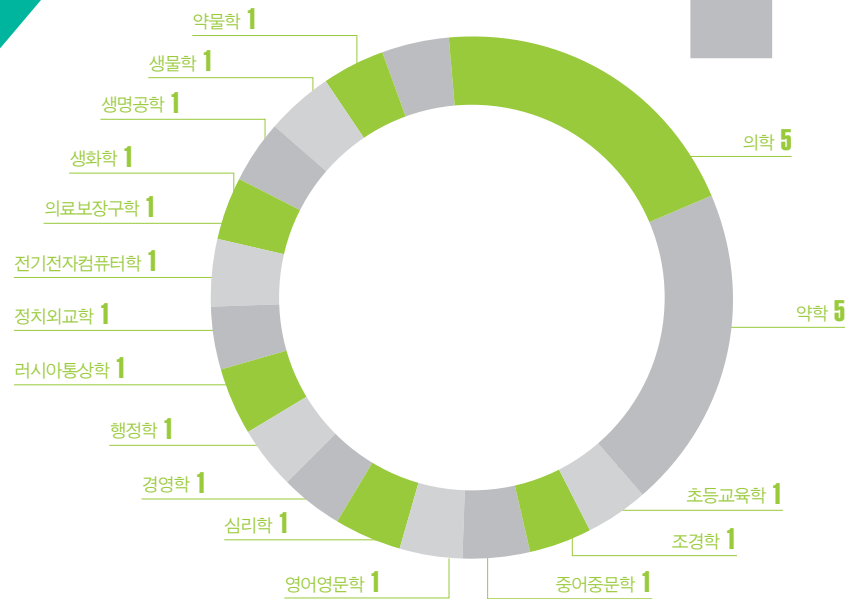
#### 핀란드

- University of Turku
- Valio Ltd

참가자 전공  
**107명**  
**18개 학과**

한의학전공 **82명, 77%**

기타전공 **25명, 23%**



총 지원자 **571명**  
**(168팀)**

경쟁률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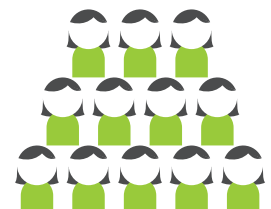
총 합격자 **107명**  
**(30팀)**

남녀성비  
**4:6**

43명  
**40%**



64명  
**60%**



기타 3.9%

사업/자영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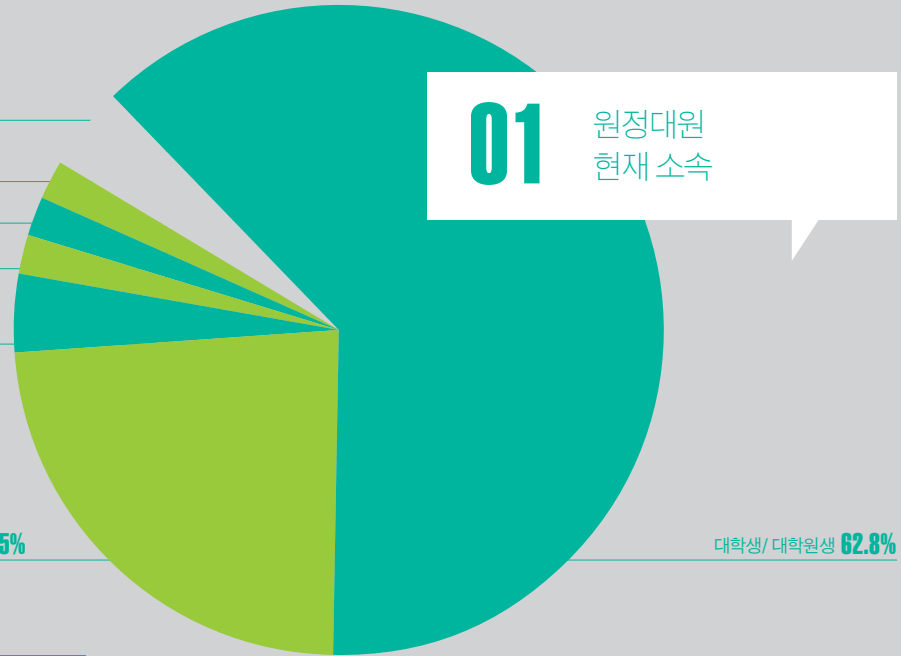
직장인 2%

공공기관/공무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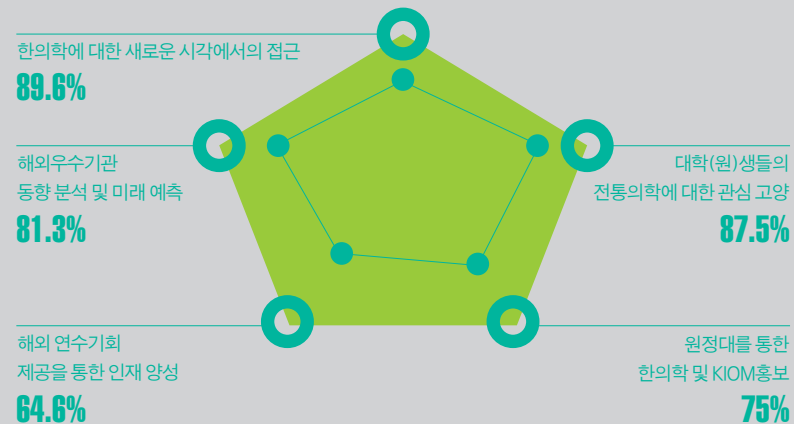
병·의원/의사 4%

한방병·의원/한의사 23.5%

## 01 원정대원 현재 소속



## 02 사업취지와 실제 활동간 연관성 정도



## 03 원정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순위

- 1 해외 전문가들과의 대화, 인터뷰 기회
- 2 견문 확장 및 글로벌 감각 체득
- 3 주제에 대한 깊은 고찰 및 학습
- 4 세계무대에서의 한의학 가능성 모색
- 5 자신감, 성취감, 도전적 마인드 강화
- 6 기획, 문서작성, 발표 능력 향상
- 7 진로 탐색의 기회

## 04 글로벌원정대 참여 만족도

98%

매우만족

만족

## 05 소속팀 연수성과 자기 만족도

66.7%

매우만족

만족

# ?

글로벌  
원정대에게  
물었습니다

KIOM 글로벌원정대를 거쳐간  
107명의 원정대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활동에 대한 의견과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Global Expedition Story

2007년 미국과 멕시코, 영국으로 떠났던

1기 원정대원들을 시작으로 KIAM 글로벌원정대의 발걸음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까지 세계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발 한발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여정은 저마다의 색깔로 결실을 맺었고,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KIAM 글로벌원정대를 거쳐간

30팀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 제1기 2007년

Be The Primary | New Wave | Hani's Angel

## 제2기 2008년

National Treasure | Co-exist | 새별

## 제3기 2009년

Blue Ocean | KIAM Millionaire | Kor-Med Design

## 제4기 2010년

수면의 과학 | Hani Peace | CCoOM

## 제5기 2011년

E.T. Hunters | 한의치국 | P.T.S.D

## 제6기 2012년

VERITAS | 6sense | Family Doctors

## 제7기 2013년

몽크의 미소 | The HANI | IamAGING

## 제8기 2014년

Med for Sports | Network Won | let EAT go

## 제9기 2015년

골지여(骨之餘) | 베이비룸 | Happy Ending

## 제10기 2016년

연결고리 | ABC | Healthy from Pandemic

# 2007 1st

## Be The Primary

### 팀원

박경석, 남운성, 민병선, 정진우

### 연수국가

미국, 멕시코

### 주제

멕시코 티후아나 단지

성공 사례 조사 및

국내 한의학 시장에서의

벤치마킹 방안 모색

### 성과

한국 현실에 맞는

중풍전문병원단지 구성안 및

해외 시장 수요 창출 위한

마케팅 전략 제시



### 팀원

박슬기, 박강인, 오민석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미국의 파동의학 관련 연구기관

및 CAM training course 연수 후

한의학과의 접목 방안 탐색

### 성과

파동학과 한의학의

접목을 통한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조사

## New Wave

## Hani's Angel

### 팀원

장정인, 강소정, 양성임

### 연수국가

영국

### 주제

대체의학 분야에서

EBM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

영국의 관련 기관 탐방 후

국내 한의학 발전 방안 모색

### 성과

EBM에 근거한 한의학 발전

방향, 연구교류 활성화 방안 및

정부 정책 모델 제시





# National Treasure

● 일시 : 2008년 10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 1층 대회의실



## 팀원

진기옥, 옥구슬, 조자연

## 연수국가

독일, 스위스

## 주제

독일, 스위스의 대체의학 관련

연구기관 탐방 후 EBM에  
대한 한의학 발전 아이디어

도출 및 한의학 홍보

## 성과

대체의학 연구의 한국형 아이디어  
및 7개 주제별 한의계 실천방향,  
목표 제시

# 2008 2nd

# Co-exist

## 팀원

남희선, 박상진, 임현정, 노현정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심신의학의 연구방법론 및  
미국의 관련 기관 탐방을  
통한 한의학 심신이론의  
근거중심의학화 방안 모색

## 성과

심신의학의 한의학의 접목  
필요성, 활용방안, 효과적 도입  
방법 등 제안



# 새별

## 팀원

최은경, 조민화, 송여주

## 연수국가

핀란드, 스웨덴

## 주제

Probiotics 연구가 활발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관련 기관 탐방 후 한의학과  
의 접목방안 모색

## 성과

Bacterio therapy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한의학 접목방안 및  
활용방안 제시





팀원

박소임, 김종우, 이재웅

연수국가

호주

주제

해양생물 연구 성과가 뛰어난

호주의 연구기관 탐방 후

해양생물을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성과

해양 약재의 효능 비교,

한의학적 사용·연구방안,

효과적인 활용방법 조사 및

KIOM의 역할 제안



# Blue Ocean

# 2009 3rd

# KIOM Millionaire

팀원

김유나, 오재우, 이종하, 조아라

연수국가

미국, 일본

주제

미국과 일본의 Anti-aging

Medicine 관련 기관 탐방 후

동·서양 관점 비교 및 한의학의

접근방법 모색

성과

한의학 Anti-aging R&D

지원기회, 진단·임상 적용,

산업화 방안 등 고찰을 통한

한방항노화센터 설립 제안



# Kor-Med Design

팀원

김은수, 이상미, 류다혜, 천수민

연수국가

중국, 일본

주제

현대적 한약 제형 연구 위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 조사 및 관련

기관 탐방 통한 한약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성과

제도, 연구, 생산, 활용 측면에서

한약 활용의 확대방안 분석 및

한약제형의 미래 비전 제시





# 2010 4th

## 수면의 과학



### 팀원

김지한, 신지영, 김민혜, 황규목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수면의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관련 기관 탐방 후  
수면의학 분야에서 한의학이  
지니는 가치 및 가능성 모색

### 성과

수면의학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가능성 확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방수면의학센터 비전 제시



### 팀원

박소정, 김사라, 김재균, 강세린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국내외 재난대책 구호의학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계점 진단  
후 한의학과 접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성과

제도개선, 전문성 확보, 매뉴얼  
제작, 네트워크 형성 등 고려사항  
조사를 통한 재난구호의학  
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 제안

## CCOOM

## Hani Peace

### 팀원

유동원, 박찬, 이병탁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U-Healthcare 기술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관련 기관  
탐방 후 한의학과 접목 방안  
모색

### 성과

한의학의 U-Healthcare화  
가능성 및 핵심가치 탐구





팀원

김진아, 홍지혜, 이지인

연수국가

미국

주제

미국의 후성유전학 분야

선도적 연구·치료기관 탐방 후

후성유전학과 한의학간의

연계 방안 모색

성과

한의학과 후성유전학 접목을

통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발,

현대적 태교 프로그램 개발 등

KIOM의 연계 활용방안 제시



E.T. Hunters

2011 5th

팀원

김두리, 이치현, 최은지

연수국가

중국(대만, 홍콩)

주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객관성 확보 중심의 개선방안

모색

성과

보험제도, 한약제제, 교육제도 등

각 분야에서의 개선사항 도출 및

발전 방향 제시



P.T.S.D

한의치국

팀원

윤정민, 김민아, 김보미

연수국가

미국

주제

미국의 외상 후 스트레스 연구,

의료기관 탐방 후 한의학적

연구·치료법 확립 방안 모색

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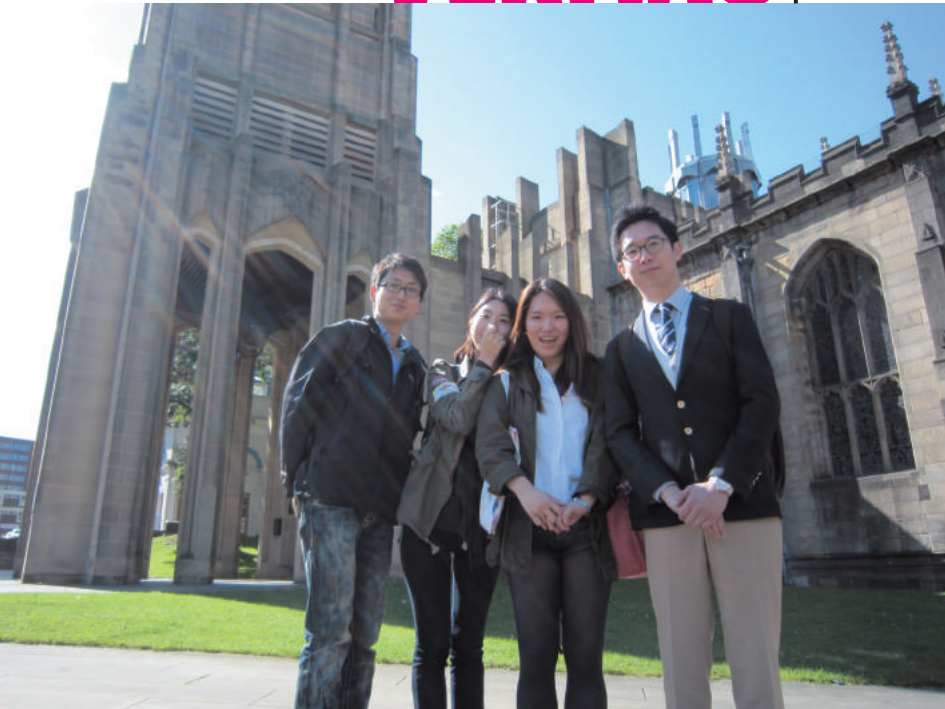
질환 치료에 상담요법과 함께

한의학적 치료 방법 접목 제시





# VERITAS



## 팀원

이지수, 김윤나, 박여은, 정돈명

## 연수국가

영국

## 주제

영국의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현황 파악, 기반 시스템 탐방 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학계가 준비해야 할 미래와  
전략을 고민

## 성과

국내 근거중심보건의료 체계의  
미래상 예측, 한의학 특수성  
반영한 연구 방법론 도출,  
KIOM의 새로운 역할 제시 등  
한의학계 대응 전략 모색



## 팀원

김희운, 김국경, 김대환, 양성후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EBM을 통한 한의학의 과학화,  
만성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관리 방안 개선 등을 통한  
'1차 의료로서의 한방 주치의'  
도입 방안 모색

## 성과

한의학 RCT에 대한 국가  
R&D기관으로서의 KIOM 역할  
제안 및 한의학 미래 비전 제시

# 6sense

## 팀원

서수연, 강승운, 우지연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IT기술의 빠른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 추세에 맞춘  
한방 모바일 헬스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 성과

한방 모바일 헬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KIOM 전담팀 구성안 제안 및  
추진 방향 제시



# Family Doctors

# 2012 6th



팀원

이보람, 진윤희, 김수정

연수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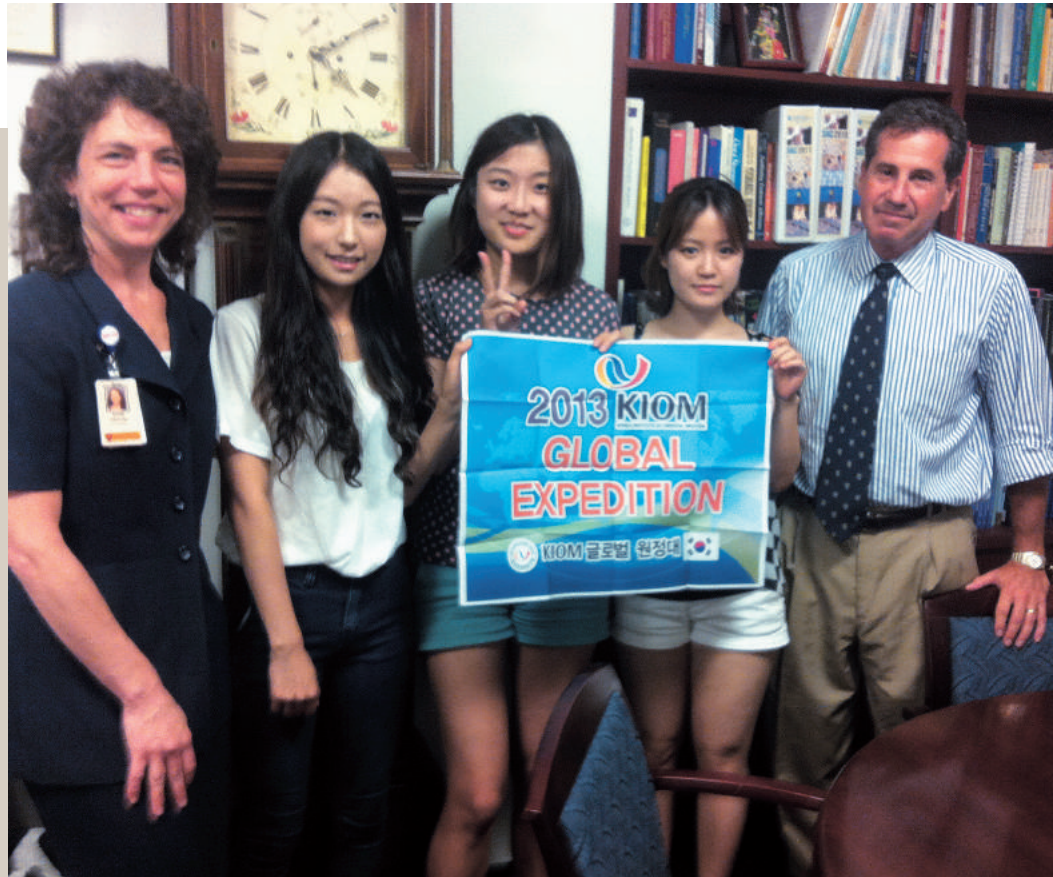
미국

주제

불안 장애에 대한 서양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의 치료법, 예방법  
조사를 통한 통합적 모델  
구상 및 발전 방향 모색

성과

시스템, 예방, 치료 측면에서의  
한방통합 불안의학센터  
모델 제시



# 몽크의 미소

# 2013 7<sup>th</sup>

팀원

추홍민, 박성준, 권준휘, 한동재

연수국가

중국

주제

빅데이터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의료데이터  
활용 현황 탐방 후 한의학과  
융합을 통한 의학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 모색

성과

한의학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조사 및 KIOM의 역할과  
방향 등 제시



# The HANI I amAGING

팀원

김해원, 김혜진, 이연선, 홍현진

연수국가

스위스, 독일

주제

선진화된 유럽의 노인  
의료 기관 탐방 후 노인 의학과  
치매 치료에서의 보완대체의학  
활용법 조사 및 국내 적용  
방향 탐색

성과

치료, 예방,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노인의료  
시스템 구축 제안





# 2014 8th

## 팀원

김도영, 박사윤, 김명선, 이민정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미국의 스포츠 의학 관련 기관

탐방 후 성장하는 스포츠

시장에서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대응전략 탐구

## 성과

예방, 치료, 재활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한방

스포츠 의학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장기 로드맵 제시



# Med for Sports

# Network Won



## 팀원

류호선, 강건, 박주현, 최안나

## 연수국가

중국(홍콩)

## 주제

시스템 생물학과 한의학의

연계 방안 고찰 및 증(證)의

근거 구축, 한의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탐구

## 성과

한의학 기본 이론의 과학화,

기전 규명, 증의 근거 마련 등

시스템 생물학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가능성 제시

# Let EAT go



## 팀원

김동혁, 남주연, 한정훈, 양승구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섭식 장애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임상, 교육, 연구 등에

대한 현황 탐방 후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활용 방안 모색

## 성과

교육예방센터, 대외홍보센터,

통합의료센터로 구성된 통합의학적

섭식장애 센터 모델 제시





## 골지여 骨之餘

### 팀원

이한결, 문한빛, 박선민

### 연수국가

중국(대만, 홍콩)

### 주제

한의학(중의학)을 이용해 치과  
질환에 접근하는 중국의 관련  
기관 탐방 및 임상에서의 활용법  
조사 통한 한방 치과 비전 제시

### 성과

치과 분야에서 한의학적 치료의  
효용성과 협진 조건 분석을 통한  
통합의학적 치과센터 모델 제시

## 베이비붐

### 팀원

이대경, 김휘영, 서승현, 김주환

### 연수국가

미국

### 주제

한방불임진료 또는 한·양방  
협진 불임진료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 파악 및 미국  
탐방을 통한 해결책 모색

### 성과

시스템, 치료, 예방 차원에서  
불임의 예방부터 치료,  
출산까지 관리해주는  
'통합의학 불임센터'  
구체적 모델 제시



# 2015 9th

## Happy Ending

### 팀원

이지연, 서한솔, 김창민

### 연수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 주제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전통의학 및 CAM 활용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국가 탐방 후  
한국에 적합한 양·한방 통합  
호스피스의 가능성 모색

### 성과

통합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방향성  
제시 및 한의학의 역할, 가능성,  
활용방안 제시





팀원

조은별, 박정림, 조은솔, 한리은

연수국가

호주

주제

호주의 전통의학 교육 현장

탐방 후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해외 전문 의료인력 대상

한의학 교육 가능성 및 MOOC

적용방향 탐색

성과

국제 한의학 교육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해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방안 제시



ABC

연결고리



팀원

이현왕, 박소현, 정재운, 박수현

연수국가

미국

주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미국의 최신 연구 동향 탐방

후 한방치료의 효과성 확인 및

한의학적 변증치료와 체계적

시스템 모델 적용방안 탐구

성과

자폐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 검증, 객관적 데이터

도출, 근본적 치료법 수행할

한방통합자폐센터 비전 제시

팀원

강지윤, 김은지, 주하와, 최새롬

연수국가

영국, 스위스

주제

근거중심의학 선도국인

영국 탐방 후 감염병 프로토콜

내 한의학의 체계적 도입을 위한

근거 구축 방향 제시

성과

통합의학 전염병 프로토콜 구축

방안 제시 및 타분야에서의

한의학 근거 구축 가능성 시사



Healthy from  
Pandemic

2016 10th

#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 속, 나아가는 한의학

2012년 'VERITAS'팀 이지수, 김윤나, 박연은, 정돈명

고가의 진료비가 걱정 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급여확대를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서 한의학이 보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품고 있던 중 KIOM 글로벌원정대라는 기회를 통해 그 답변을 찾고 싶었다.

최근 전세계의 보건의료체계가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호주와 영국은 1990년대에 시작을 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프랑스, 독일, 미국이 뒤를 잇고 있다.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 루마니아, 터키,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2008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개원을 시작으로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지 안전성과 효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와 같은 경제적 가치, 삶의 질 등 사회·문화적 가치까지 반영한다. 근거중심의 학의 바탕 위에 '가치중심의학'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VERITAS는 이와 같은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의 흐름 속에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자는 목표 아래 글로벌원정대를 준비했다. 팀 이름대로(Value and Evidence pursuing team for the Realization of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s Social significance) 한의학이 근거와 가치를 모두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글로벌원정대 탐방

체계적으로 탐방을 운영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KIOM 글로벌원정대들과 차별화된 방식을 취했다. 탐방을 '해외탐방 전 국내탐방', '해외탐방', '해외탐방 후 국내탐방' 등 총 세 부분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보다 한국의 한의학에 최적화된 탐방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본 탐방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탐방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사회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탐방 내용은 적용 가능성이 전무하게 된다. 그래서 VERITAS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일정을 구성했다.



## 1) 해외탐방 전 국내 탐방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탐방하기 전, 한국의 상황, 특히 한국 한의계의 상황 전반에 대해 살펴볼 시간이 필요했다. 적용 대상이 될 한국 한의학에 대해 미리 관찰이 있어야 탐방 지역인 영국에서 무엇을 알아볼 것인지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정석희, 고성규, 조성훈 교수님, 그리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김남권 교수님을 방문했다. 임상연구, 체계적 고찰, 경제성평가,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로 아직 한국과 영국의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에 미숙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지도교수님이기도 한 뒤의 세 분으로부터 영국 탐방에서 알아보면 좋을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이 영국 탐방의 나침반이 되었던 것 같다.

효능과 비용효과를 연구하는 '의료기술평가

파트'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연구 파트'로 나누어 검색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중 2006년 이후의 연구만을 고려해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했다. 또한 영국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정부기관들도 방문했다.

우리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Sheffield라는 도시로 향했다. 이 도시에는 '의료기술평가 파트'에 해당하는 'University of Sheffield'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고 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여러 차례 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영국의 의료기술평가 기관들은 information specialist, systematic review 전문가, 경제학자, 임상전문가, 통계학자 등 필요한 모든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차례 방문을 통하여 네 명의 연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분들 모두 각종 정부기관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두 분과의 만남이었다. 이 분들은 인터뷰 대상자 섭외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감사를 표시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두 시간이 넘게 대화를 하면서 University of Sheffield의 인터뷰 대상자에 못지않게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한분은 심평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영국 특유의 발음과 긴장으로 애를 먹었던 첫 번째로 진행한 인터뷰 후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었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Panos Kanavos 교수님을 방문하였다. 친절한 Martin Knapp 학장님의 도움이 컸는데 학생들의 이러한 연구 활동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만난 Kanavos 교수님은 영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리스, 브라질, EU 등 국제보건정책 연구도 진행하는 등 저명한 학자이다.



## 2) 영국 탐방

영국은 한국보다 10년 정도 먼저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를 구축했다.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영국을 방문해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방법론 등을 알아보고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리는 인터뷰 기관 선정을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Pubmed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을 모두 검색하여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배출해낸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의료기술의



Kanavos 교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예약한 전망이 좋은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연구실로 향하여 탐방에 중요한 논문집을 주셨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꾸려나가는 정부기관이 탐방에 빠질 수가 없다.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파이프라인은 NIHR(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NETSCC(NIHR Evaluation, Trials and Studies Coordinating Centre)-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로 구성되어있다. NIHR은 공적임상연구를 지원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의 책임자로부터 NIHR은 가상의 기관이므로 NETSCC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NETSCC는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학 연구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각 연구기관에 연구를 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곳은 여건 상 서신교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면하여 진행한 인터뷰만큼이나 충실한 답변에서 영국인의 철두철미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NICE를 방문했다. NICE는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Health and Social Care Bill 2011에

서는 영국 보건의료의 5가지 주체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영국의 NICE를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선정 이유로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NICE International Programme의 설립이사인 Kalipso Chalkidou는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어 첫 메일부터 반갑게 답장해주셨다. 그리고 만성 비특이성 요통에 침치료가 권고된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보이자 NICE 가이드라인 팀에 근무 중인 한국인 Kim Jeong 선생님도 불러주셨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Chalkidou 박사님은 중국의 중의학 의료기술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우리에게 한국 기관에서 연구한 선례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시는 등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 영국 탐방기간 동안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곳은 자선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Nuffield Trust였다. 이곳은 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민 세금이나 기업 등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대학교 및 연구소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Benedict Rumbold를 만나 영국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과 한국 및 한의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Rumbold 연구원은 학생들의 방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해 VERITAS의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인터뷰 내내 질문에 귀기울여주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었다. 그리고 도덕철학을 전공한 경험으로 그동안의 경제학자나 정책연구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주기도 했다. 탐방 일정 마지막 날이라 몸은 지쳐있지만 영국에 있었던 기간 중 가장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 3) 해외탐방 후 국내 탐방

해외탐방 후 국내 탐방은 한국의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탐방에서 배워온 내용을 어떻게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고민해보고자 했다. 그래서 근거중심보건의료체계 내 각 분야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분들을 방문했다. 모두 의료기술평가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로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조재국 원장님을 방문하였는데, 원장님의 소개로 대한한 의사협회 상임 부회장 최문석, 상근 보험이사 김경호,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원 최창혁, 강예원 선생님도

인터뷰에 동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을 주셨다. 이 인터뷰에 한의신문 기자분도 동석해 후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태진 교수님을 방문하여 한국 학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기회도 가졌다.

우리나라 근거중심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NECA는 총 세 번에 걸쳐 방문했다. 이상무 본부장님과 의료기술평가 팀장 및 경제성평가 팀장을 맡고 계신 안정훈 팀장을 방문해 근거중심보건의료 체계의 국내외 변화와 NECA의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부는 한의사 출신인 분들을 섭외해 한의계에 대한 높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의계에 최적화된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의 교수님이자 한의학정책연구회 회장인 임병목 교수님을 방문하면서 부산대학교 한의학 임상연구센터에 방문하기도 했다. NECA에 근무 중이신 보건서비스분석실 장보형 책임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 현민경 책임연구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다. 이분들은 NECA에서 실무를 맡고 계시면서도 한의사이신 분들이라서 이번 연수에서 가장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셨다.

### 탐방을 마치며

VERITAS는 모두 같은 학년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부터 근거중심의학과의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 글로벌원정대에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의 공부는 책과 문헌 등

중이 위의 글자에 한정되었었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관계자들을 만나 실재를 알 수 있었다.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이 분들을 만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국과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연구자들은 친절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자료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논문과 신문기사 속에서만 봤던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원정대라는 기회를 잡았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글로벌원정대 지원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만들었던 질문지를 각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리고 사전 이메일이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로 한국의 특이한 이원화 체계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넣어 한의학과 한국 실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Nuffield Trust에서 만났던 Rumbold 연구자는 우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한의학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KIOM에서 제공해준 'Introduction to Korean Medicine'이라는 한의학 소개 책자를 매우 반가워했다. 한 의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글로벌원정대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2011년 글로벌 원정대에 선정되었던 동기로부터 '방학을 모두 투자해야 할 것'이라는 경험담을 들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의심했지만 머지않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한국 탐방을 시작으로 우리는 여름방학을 모두 탐방을 위해 쏟아 부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얻지 못할 소득을 얻었다. 학생시절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큰 경험이니 말이다. 인터뷰를 위해 외국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며 질문을 정리했던 날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경험이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탐방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연구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찾은 답도 많은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KIOM이 제공해준 글로벌원정대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를 밝힐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정서는 ‘불안, 우울, 분노’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울과 분노는 특정한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이지만 불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입시나 취업, 경제적 문제, 죽음 등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팀은 불안장애라는 ‘질환’을 치료하기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불안을 ‘관리’ 하는 센터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한방통합불안의학센터’의 모델 제시를 연수의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연수 국가는 정신 질환, 그 중 특히 불안장애에 관한 접근성이 높은 미국으로 선정했다.

**불안장애 예방에 대한 깨달음을 얻다**  
먼저, 메릴랜드 주의 Silver Spring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불안장애협회 (Anxiety and Depression Association of America, ADAA) 사무실을 방문했다. ADAA는 평범한 수학교사였던 Jerilyn Ross가 갑자기 불안장애로 인한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내는 과정에서 설립한 협회로 clinician은 물론이고 심리학, 상담,

신경과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과 환자가 모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수평적인 단체이다. ADAA는 환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의사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conference를 개최해 여러 나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하게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불안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책자를 연령별, 성별로 각각 다양하게 제작한다. 우리는 ADAA의 상담사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녀의 추천으로 ADAA의 전 협회장이며 현재 하버드 대학 부속 병원인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psychiatric chief doctor인 Jerrold Rosenbaum을 만나 보았다. Dr. Rosenbaum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psychiatric professor이자 director인 Dr. Naomi Simon을 초청하였고 두 분 모두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다. 우리는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안장애는 특정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불안장애의 미병(未病)상태에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환자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접근성이 높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과학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다음으로 Bethesda에 있는 USU(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를 방문했다. 이곳은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제반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초점을 둔 기관이다. 우리는 USU에서 불안장애를 뇌과학, 신경과학 방면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최광호 박사님을 뵈고 USU탐방과 인터뷰를 했다. 박사님께서서는 뇌과학,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 기존 불안장애 치료법의 유효성 및 부작용을 검증하고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계셨다. USU 방문을 통해 우리도 불안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진행해 치료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New York에 있는 Center for Health & Healing을 방문했다. 이곳은 재작년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던 곳으로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센터였다. 실제로 서양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acupuncture, 심리치료, 그림치료, 음악치료,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한방통합불안의학센터’의 모델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Doctor와 Researcher, Therapist가 서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medical doctor인 Martin Ehrlich와 함께 우리의 연수 목표인 ‘한방불안의학센터’의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에 있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를 방문했다. APA는 미국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으로 불안장애의 서양의학적 진단기준인 DSM을 발간하는 곳이다. 우리는 APA 탐방을 통해 의사들 간에 소통의 중요성과 불안장애의 한의학적 DSM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미국 탐방 전후로는 대한불안의학회 채정호 이사장님, 옛날한의원의 조흥건 원장님, 강동 경희대병원의 김종우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했다. 미국 탐방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연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셨고, 탐방 후에 우리의

미국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통합불안의학센터’의 구체적인 모델에 대해 조언 해주셨다.

이와 같은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치료, 시스템, 예방의 3가지 측면에서 ‘한방통합불안의학센터’의 구체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치료 측면에 있어서 한의학적 변증론치를 통한 한방치료, 양방과의 협진을 통한 응급처치 약물의 사용, 다양한 치료사들을 수용하여 그림치료, 심리치료, MBSR치료, TEA therapy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스템 측면에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통합을 추구한다. 첫째로, 불안장애는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므로 심신치료를 함께하고 둘째로, 양방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한방과 양방의 통합적 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판단’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한의사와 ‘치료’를 실시하는 치료사들 사이에 적절한 위계질서를 두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때로는 토의를 통해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등 위계와 수평의 통합을 추구한다. 센터 내 공간은 치유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택하는데 장소에 따라 밝기가 다른 조명, 음악, 자연섬터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치유환경을 조성한다. 또, 상주 상담사를 두어 원거리환자에게도 그 근처의 의료인이나 의료시설을 연결시켜주며 환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상담 시스템을 운영한다.

예방 측면에 있어서는 센터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센터의 치료 데이터를 객관화, 표준화하여 한의학적 DSM을 수립하고 뇌과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conference를 개최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학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책자를 연령별, 성별로 각각 다르게 제작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글로벌원정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예비 한의사로서 현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어떤 한의사가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KIOM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열정을 불태웠던 팀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 통합의학적 치과 센터를 그리다

2015년 ‘골지여(骨之餘)’팀 이한결, 문한빛, 박선민



‘치자골지여(齒者骨之餘)’는 ‘이는 뼈의 남음’이라는 뜻이다. 처음 이 이름을 들은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전년도

KIOM 글로벌원정대 유럽원정팀을 지원했지만 2차 면접에서 무참히 탈락하고 나서 한의학과 별다른 인연이 없이 지내오다가 또 다시 도전해 보자는 한의대생 친구의 권유로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시작하게 되었다. 한의대생 친구는 커리큘럼 상 오랜 시간 동안 현대의학을 배우지만, 한의대생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생각이 한 쪽으로만 쏠릴 수 있다고 생각해 의대생인 나와 함께 팀을 꾸리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한의대생 친구 외에는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한의학 개론 스터디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이나 학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스터디와 토론을 거친 후 서로의 학문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었다.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때마침 불만제로에서 나왔던 ‘이가탄, 인사들의 진실’을 보게 되었는데, 치주질환이라는 큰 제약시장에서 시장의 지배자인 ‘인사들’과 ‘이가탄’이 추락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많은 생각을 안겨 주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약의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라면 얼른 그 큰 시장을 효과가 있는 약이 대체한다면 정말 수익성이 뛰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시장에 한의학이 뛰어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가 골지여팀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1, 2차 심사 준비가 그러했듯, 끝이 보이지 않던 연수준비도 어느덧 잘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8월 3일. 우리는 땀땀하게 부푼 기대를 안고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중국 중의과학원 부설 중의병원-서원병원, 광안문 병원

첫 번째 연수기관은 서원병원과 광안문 병원이다. 북경에서 아니 중국에서 제일로 꼽는 중의병원이니 당연히 골지여 팀이 가야하는 곳이었다. 서원병원에서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이는 약물을 담은 부항컵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턱관절로 조금씩 모공을 통해 약을 흡수시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 약물이 무엇인지는 서원병원의 기밀이었기 때문에 알기는 어려웠으나 매우 특이한 치료방법이었다.

## 북경대학교 치과병원

북경대학교는 중국 제1의 대학으로 북경대 치과병원은 구강질환을 보는 골지여팀이 꼭 가야하는 곳이었다. 양방적 진단과 한의학적 진단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진단을 내리고 양방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구강점막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었다.

## 홍콩대학교 김립견, 정립무, McGrath 교수님

홍콩대학교 교수들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고, 모두 자신의 연구 자료를 주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했다. McGrath 교수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의학의 시작은 약초학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의학은 아주 연구가치가 높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치과대학의 김립견 교수는 한약재인 황금에서 Baicalin이라는 물질을 추출하여 치주치료 주사제를 개발했는데, 이는 현재 치과치료에서 사용되는 주사제들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여서 1년 내로 상용화 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연구 성과가 곧 약으로 시판된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치과대학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의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치의학과 중의학의 결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국이나 여러 의료 선진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한의학 개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여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의학 종주국이어야 할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 아쉬웠다.

## 대만 중국의약대학

대만 중국의약대학은 우리팀에게 탐방일정을 표로 정리하여 미리 보내주었다. 세심한 준비를 해줘서 매우 고마웠다. 우리가 도착할 때 종경광 교수의 대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해주었고, 한글로 된 명찰을 차고 있어 또 한 번 세심함에 감동을 받았다. 종경광 교수는 생강 추출물인 커큐민으로 구강암을 치료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다. 아직은 연구단계이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암 치료제 개발이 하루빨리 실현되면 좋겠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팀은 한의학-치의학 협진 프로토콜을 개발해 보았다. 물론 학생들끼리 진행한 프로젝트인 만큼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임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았다. 20~30년 전 양의학과 한의

학 협진이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현재 누구나 아는 개념이 된 것처럼, 한의학과 치의학도 언젠가는 임상적으로 협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학을 배우면서 한의학과 의학의 갈등을 많이 보았다. ‘한의학은 객관적 근

거가 없다’,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으나, 이번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중국, 홍콩, 대만에서 중의학으로 구강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의학도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고, 이를 잘 발전시켜나가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한의학을 바라보는 눈이 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다.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준 KIOM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배움의 순간을 즐겼던 청춘들의 모습. 소중한 그 추억을 모았습니다.









# Open Innovation Creative **KIOM**

한의학이 첨단과학과 만나 세계인의 전통의학으로 거듭납니다.  
개방형 혁신으로 미래 선진의학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해정  
편집실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외협력팀 (042-868-9274)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한국한의학연구원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http://www.kiom.re.kr)

